



기획특별전

“애야 나 어렸을 적엔”



463. 학교종

한울교역박물관 · 독립민속박물관 소장



1960년대의 초등학교 교실(재현)



464. 초등학생 가방



465. 지구본과 참고서



466. 학급 깃발



467. 교탁



468. 풍금



469. 3인용 책걸상
한빛교육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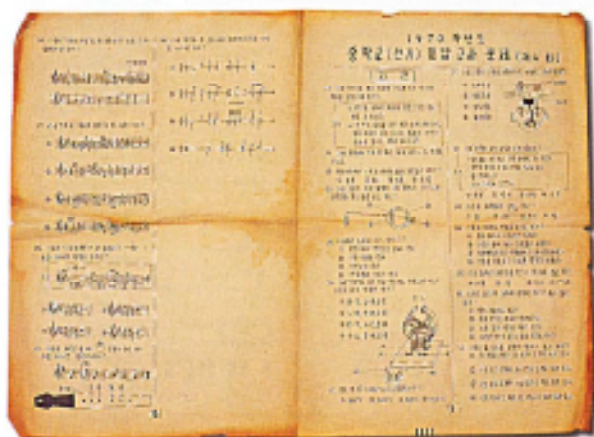
470. 책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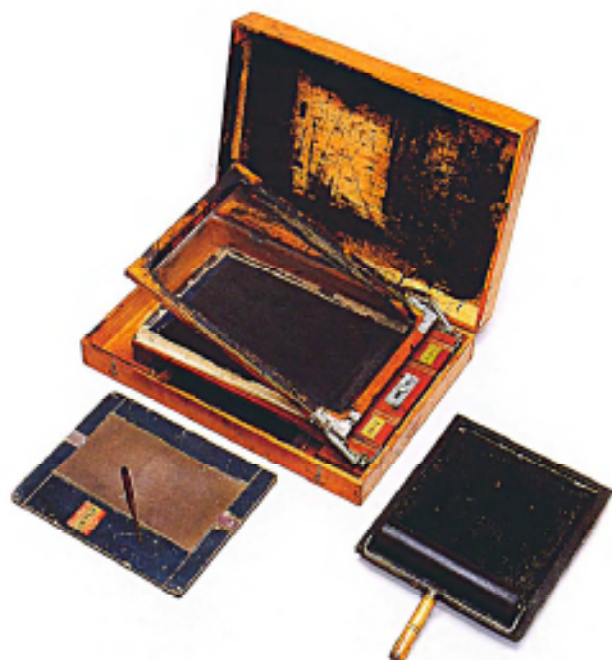
471. 책가방과 신발주머니. 실내화
김덕현 소장



472.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를 들고 있는 여학생들
최인석 사진



473. 중학교 시험문제지(앞·뒤)
민원규 소장



474. 유인물 · 시험지를 인쇄할 때 쓰던 등사기와 철필



475. 생활통지표
한밭교육박물관 · 이정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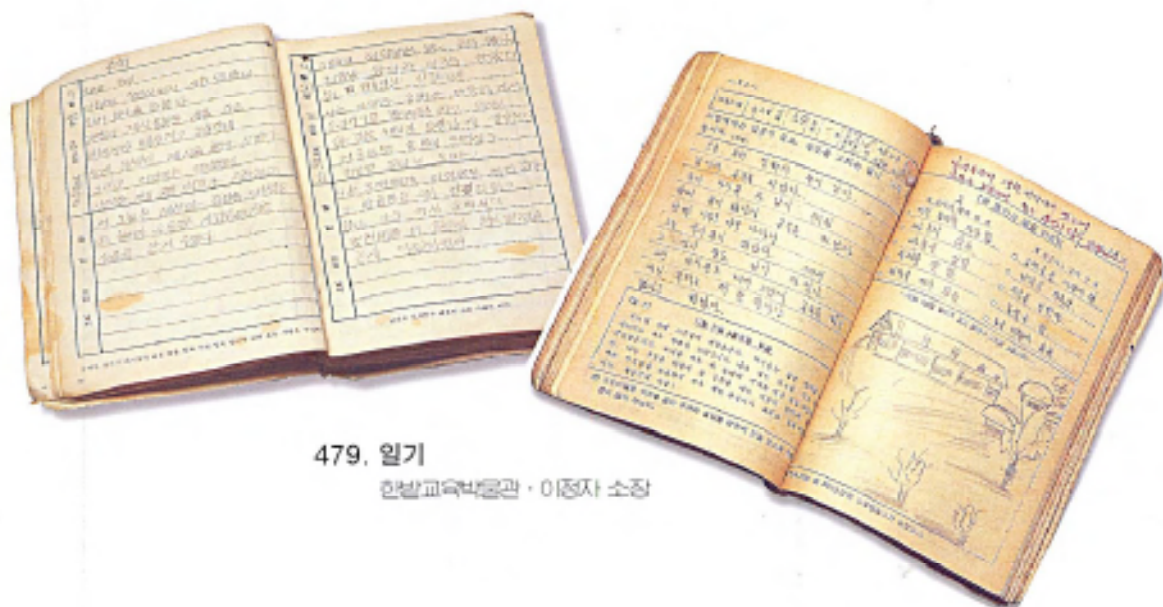
476. 상장
한밭교육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477. 건강기록부



478. 출석정지명령서와 기성회비 영수증
민권규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479. 일기
한철학교육박물관 · 이정자 소장



480. 양은 도시락통



481. 혼분식 도시락



482. 학교급식용 항상자



483. 도시락통
한빛교육박물관 소장



484. 학예회 전단
민권회 소장



485. 소품가방
유인동 · 민권회 ·
이디사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486. 소품
최인석 사진



487. 일제시대 가을 운동회 계획표



488. 운동회 용품들
김영준·김덕현·민권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490. 공굴리기
김성대 사진



489. 스타트 화약총



491. 방학생활

민권규 소장

초등학교 방학책으로 과학지식을 응용한 장난감 만들기, 만화, 위인들의 삶 및 방학기간에 해야 할 일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5·16이란 시대를 반영한 듯 '혁명기념'이란 제호와 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92. 공부

홍성욱 사진



493. 졸업앨범

한남교육박물관 소장

각종 초등학교 졸업앨범으로 선생님과 졸업생들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수학여행, 운동회 등 6년간의 중요한 학교 생활의 추억이 담겨 있다.



494. 졸업장통과 졸업앨범

한남교육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졸업은 졸업장과 졸업앨범이라는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준다. 졸업장은 졸업식 날 학교 밖의 노점에서 산 졸업장 통에 담겨 졸업앨범과 함께 소중히 보관되었다.

교과서

‘천자문’과 ‘동몽선습’으로 대표되는 전통 서당교육은 개항과 더불어 점차 서구식 교육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학문을 기초로 한 여러가지 소학교용 교과서가 출현하였다. 1895년 학부편집국에서 시험출간한 『國民小學讀本』을 시작으로, 국어, 외국어, 도화, 역사, 지리와 관련된 교과서들이 정부 및 민간에서 활발히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 민족교육의 맥은 끊어지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적합한 교과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은 일본어에게 국어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으며 또한 일본 천황에 대한 절대복종 및 이에 따른 봉건적 질서를 강조하는 수신이 매우 강조되었다.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광복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다시 민족교육을 위한 교과서 편찬의 시도들이 전개된다. 미군정 치하에서 한국교육심의회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미 군정청 학무국의 협조아래 국어독본, 국사, 음악, 습자, 공민 등의 교과서를 출간, 공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민간협회들 역시 교과서 편찬에 노력하여 많은 민간관련교과서들도 등장하였다. 1948년 미군정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교과서의 편찬은 문교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일어난 한국전쟁은 광복후 교과서편찬을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전시독본』, 『전시생활』과 같은 교과서의 꾸준한 편찬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들 교과서에는 반공과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듯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종이로 생산되었음을 교과서 뒷면에 표기하였다. 60년대와 70년대 산업의 부흥과 더불어 교과서도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다. 그 전까지 단색위주로 제작되었으나 색도가 들어간 교과서가 출현하였으며 편찬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교육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날 교과서는 내용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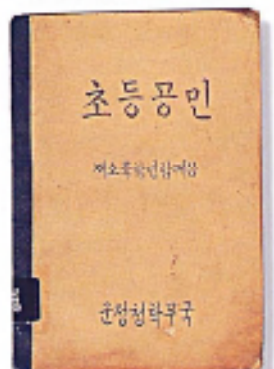


495. 동국역사(東國歷史)

헌재 저 1899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고려시대까지의 역사가 기술된 소학교용 역사교과서로 1910년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발매금지처분을 받았다



496. 해방직후의 교과서

삼성출판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945년 9월 미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각종 교과서가 국내 학자들의 협조아래 미군정청에 의해 발간되었다.



497. 1인용 책걸상

한빛교육박물관 소장



498. 국민학교 교과서(1950년대)

생활에 중심을 둔 교과과정을 취지로 한 제1차 교육 과정에 의거해 발행된 각종 교과서들로 전쟁직후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미국 및 국제연합한국재건위원회(UNKRA)로부터 종이를 원조 받아 제작하였다.



499. 보통학교 교과서(일제시대)

식민지정착수행을 위한 정신강화교육에 역점을 둔 일제시대의 각종 교과서들로 국어로 일본어가 강조되고, 한글은 '조선어'란 이름의 별도 교과목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500. 국민학교 교과서(1960년대)

국가발전에 부흥하는 국민의 양성을 목표로 한 제2차 교육과정에 따라 발행된 각종 교과서로 반공 및 도덕이 강조되어 있다.



501.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1999년)



502. 국민학생용 공책

국립민속박물관 · 김영준 · 김덕현 소장



503. 전과수련장

민권규 소장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습서로 각 과목의 이해를 돕는 설명과 평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504. 암기장

한문 및 영어단어가 담겨있는 암기장으로 가지고 다니며 볼 수 있도록 작게 만들었다.



505. 색연필



506. 크레파스

손에 휴대하기 쉽게 비닐가방이 포함된 크레파스로 초등학교 저학년 미술시간에 주로 사용되었다.



507. 그림도구

문승욱 · 정영미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508. 색종이



509. 조각도
김영준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510. 음악 교재
민영규 · 김영준 · 한남교육박물관 소장



511. 주판과 주산진급카드 세트



512. 어린이용 주판



513. 지도모양 자



514. 삼각자



515. 바늘구멍 사진기



516. 실습용 현미경

한밭교육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517. 과학 교재

김영준 소장



519. 교복(남학생용)

1983년 교복자유화 이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이후에는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교복으로 바뀌었다.



518. 중·고등학생 가방



520. 공책과 볼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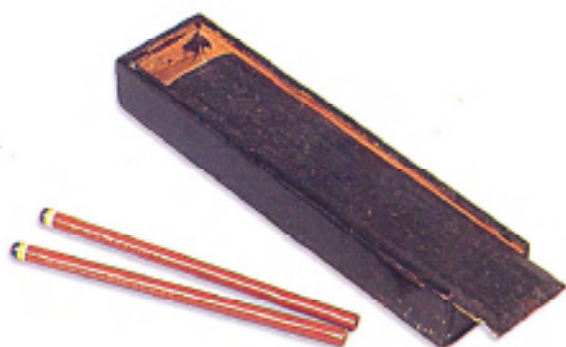
국립민속박물관 · 최용규 소장



521. 펜과 펜대



522. 잉크병



523. 연필과 필통

한밭교육박물관 소장

연필 하나라도 아껴써야 했던 우리들. 자주 꺾어서 손에 찔 수 없는 연필을 불펜대에 끼워 쓰는 하었다.



524. 앉은뱅이 책상

자기만의 방을 가지지 못했던 시절. 동생은 잠을 자고 나는 방 천구석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공부를 했었다.



525. 연습도
전래의 송경도처럼 만들어진
일제시대의 놀이판



526. 명승놀이판
최용규 소장



527. 뱀주사위놀이판(공책 뒷면)
김덕현 소장



528. 축구놀이판
민관규 소장





529. 미니카



530. 미니카



531. 장남갑 뱀과 기차
김덕현 · 유인동 소장



532. 미니카와 동동배





533. 동차

윤양민박물관 소장



534. 동차



535. 소형 자동차



537. 유모차를 타고 있는 꼬마
자료제공 유인동



536. 토끼 자동차



538. 유모차
유인동 소장



539. 씹씹카



540. 종이인형
민권규 소장



542. 판박이



541. 딸랑이
김덕현 · 민권규 소장



543. 장난감 개구리와 딸
김덕현 · 민권규 소장



544. 꽃노리개



545. 팽이

은강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 유인동 소장



546. 팽이치기

최인석 사진



547. 장난감 총과 장난감 계급장
유인동 · 최영규 소장



548. 화약놀이 장난감
유인동 · 민권규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549. 인형
민권규 소장



550. 잠자는 인형
정영미 소장
인형을 누르면 눈이 감긴다.



551. 양배추 인형
민권규 소장



552. 유치원
도재원 사진



553. 목마
정병태 사진



554. 놀이공원의 미니카
최인석 사진



555. 총싸움
최인석 사진

만화와 만화영화

오늘날 만화는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되고, 아울러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화는 아이들의 전용물로만 인식되었으며 '만화 갈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비하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신문지상의 시사만화를 제외하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인만화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사실 영어의 'Comics'에 해당하는 줄거리가 있는 만화는 몇몇 극화를 제외하고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다수였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만화의 시작은 1920년대 어린이 잡지의 창간과 시작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만화들은 대부분 정기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또한 특정한 주인공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해방이후 여러종류의 어린이 잡지가 속속 출간되었으며 또한 단행본 만화도 출현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김용환의 '코주부살국지', 김성환의 '꺼꾸리군·장다리군'이 《학원》등의 잡지를 통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이들 어린이 만화는 일간신문에도 연재가 되었다. 특히 인기만화작가를 중심으로 만화전문 잡지인 《만화세계》가 창간하여 한때 만화잡지 붐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단행본만화가 많이 등장하였으나 60년대를 전후하여 서점중심이 아닌 대본소(만화가계) 위주로 자리가 옮겨짐에 따라 원고의 다량생산과 인쇄제본의 저질화를 초래했으며 이과정 속에서 일본만화의 표절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저질화의 경향에 따라 만화의 출판은 정부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556. 1970년대의 만화책
민권규 소장



557. 만화책을 보고 있는 아이들
최인석 사진



558. 어린이 잡지
민권규 소장



559. 마징가 제트와 철인28호
민권규 소장



560. 만화영화 「호피와 차돌바위」
포스터
민권규 소장



561. 만화영화 「마루치아라치」
포스터
김영준 소장



562. 만화영화 「로봇대전V」
포스터
김영준 소장

196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 최초의 만화영화 제작되었다. 신동현 감독의 '홍길동'으로 바로 뒤에 제작된 '호피와 차돌바위'와 함께 큰 인기를 끌며 만화영화제작의 붐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1970년대는 김청기 감독의 '태권브이', '돌이장군'으로 대표되는 만화영화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극장용 만화영화는 TV의 보급과 80년대 우회매등 실사 합성영화의 인기로 인하여 더 이상의 수작을 남기지 못했다. 80년대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독자층이 많이 확보되었으며 아울러 만화 김수정의 '둘리', 그리고 이현세의 '까치' 시리즈 등의 인기작품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기존 일본작품의 수입에만 의존했던 TV만화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와서는 일본만화의 대량수입에 의해 우리만화가 일부 위축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 만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는 우리나라 만화산업의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563. 캔디 책받침
민권규 소장



565. 만화영화 「장가」 레코드
민권규 소장



564. 만화영화 「돌이장군」 레코드
민권규 소장



566. 딱지
민권규 소장



567. 가면
김영준 소장



568. 딱지치기
박용만 사진

짱뚱이의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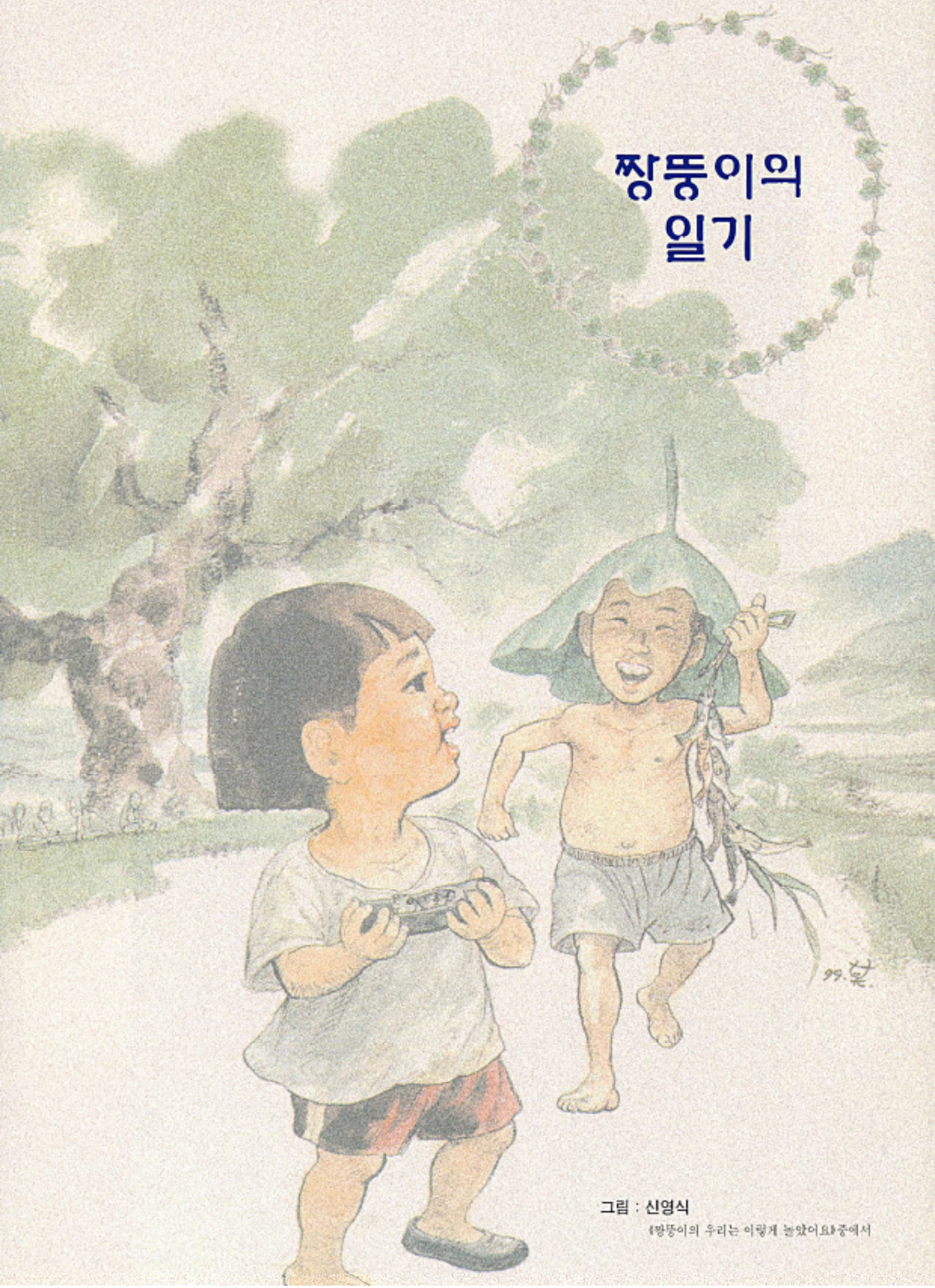


그림 : 신영식

《짱뚱이의 우리는 이렇게 놀았어요》중에서

□어린시절의 놀이와 일상 / 글, 오진희(동화작가)
그림, 신영석

짱뚱이의 일기

4학년 2반 짱뚱이

뽀뽀한 고무 지우개로 몇 번 지우면 구멍이 나 버리는 거
칠 거칠한 공책에 동당 연필로 침을 묻혀가며 글씨를 쓰던
'나의 모습'이 소중한 사진첩을 보는 것처럼 이 일기속에 있
어요.

자아, 모두 짱뚱이가 되어서 옛날엔 '아하 그랬었지' 하면
서 작은 우리들의 교실 공보 책상 앞에 앉아 보세요.



물청소

"우당탕탕 쿵쿵쿵쿵" 오늘은 대청소의 날이에요

다음 주에 있을 환경정리심사 때문에 온 학교가 '시끌시끌'해요 맨발로 찬물을 묻혀
기엔 아직도 망설여 지는 날씨인데 청소시간이 되자 선생님의 호령소
리에 모두들 양말을 벗고 걸레를 들고 교실벽 쪽으로 섰어
요. 교실 바닥에 비누 가루를 '수우울...술' 뿌리고
걸레에 물을 적셔서 궁둥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왔다 갔다. '부욱...부' 교실 바닥을 밀고
다녔어요 재수없이 오는 당번인 나는 걸
레 한개만 집어 넣으면 금방 까맣게 구
정물이 되어 버리는 수대를 들고 수돗
가에 열심히 물을 받으러 다녔어요.
학교 전체가 물청소를 하는 날이라서
수돗가엔 물을 받으러온 각 반 당번들
이 줄지어 늘어서 있구요 "야, 비켜, 안
비켜" 소리치며 파고 드는 6학년 힘센
오빠들에게 밀린 우리는 뒤로 물러나야
만 했어요. 억울하게 교실에선 선생님께
장난치다 늦게 왔다고 혼났어요. 시키렇게
묵은 교실 바닥 때를 비눗물로 벗겨내고요,
바닥이 마르면 그 때 노란물을 들이는 거예요. 선
생님은 나무 토막에 새끼줄을 들들감은 수세미를 몇 개
구해 오셔서 힘센 남자아이들에게서 들려주셨어요.

"북북박박"



“밀고만 다니지 말고 짹짹 문질러” 참다못한 선생님께서 드디어 슬리퍼를 벗고 양말을 벗고 수세미를 들고 바닥을 밀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때질은 나무판이 조금씩 보오얀 살을 드러 내놓았어요. “자 책상 다시 이쪽으로 날라라 끌지 말고 붙은 붙은 들어서 날라 그렇게 끌면 젖은 나무가 다 일어난다” 선생님의 고함소리에 우리는 얼굴을 찌뿌리고 쭈뼛대며 다시 책상을 들어다 반대편에 놓고 칠판밑에 교단까지 물청소를 했어요. 얼굴에 땀 범벅이 되고 물을 나르던 손에 수대의 손잡이 자국이 뼈알갈게 난 뒤에 청소가 끝났어요.

물에 젖은 걸레들을 창가에 널어 놓으면서 이런 날 ‘엄마가 고구마를 삶아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노오랑 물

어제 청소한 바닥에 노란 물을 들이는 날이에요. 교실에 있는 책상을 모두 복도로 내놓고 “내일은 숙제 대신 초 토막과 걸레를 만들어 오도록 초 안 가져오면 다섯 대, 걸레 안 만들어 오면 열 대다.”라고 선생님께서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얘기 하셨습니다.

주변하고 반장 부반장 어린이회 임원들과 키 큰 몇몇을 선생님께서 남으라고 하셨습니다. 수대에 물을 받아서 종이에 싼 노란 가루를 선생님께서 털어 넣으시고 지휘봉으로 ‘휘휘’ 저으셨습니다. 지휘봉이 금새 노랗게 물 들었어요. 깨끗한 빗자루로 구석부터 차례차례 물 들었어요. 나무 걸에 따라 ‘스으윽 스’ 물 들었어요. 발바닥도 손바닥도 어느새 노랗게 되었어요.

그래도 노란빛깔로 산뜻하게 물든 교실 바닥을 보니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안녕 잘 가 내일 만나...”

노란 손을 흔들며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걸레



“오늘부터 연필깎아서 바닥에 ‘획’ 하고 부는 놈들 가만 안 둔다. 연필심만 갈아서 부는 놈들 걸리기만 하면 물 청소 시키겠다.” 아침 조퇴 시간에 선생님께서 호랑이 눈을 치켜뜨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단장들과 주변까지 바닥을 더럽히는 사람 이름을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반장 영선이는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한 시간에도 몇번씩 연필심을 갈아서 ‘획’ 붙였는데 제이름을 한번도 적지 않았어요.

5교시가 끝나고 잊으셨나 했더니 선생님께서 걸레 만들어 온 것 모두 책상위에 올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걸레 안 만들어 온 놈 앞으로 나와”

하봉이랑 서너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하봉이 너 왜 안 만들어 왔어?”

“할머니가 걸레 감이 없대요” 고개를 꼭 숙이고 힘없이 하봉이가 말했어요.



채변 봉투

내가 제일 싫어 하는 것, 바로 똥 봉투를 오늘 선생님이 나누어 주셨어요.

“똥장을 넣어 오는 놈, 남의 똥을 넣어 오는 놈, 똥장이나 다른 것을 넣어 오는 놈은 이번에 기제가 좋아져서 알아 낼 수 있어, 조사해서 다른 것을 넣은 사람은 그걸 다시 먹으라고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선생님께서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얇은 습자지 같은 봉투는 똥을 담으면 다 보이게 생겼어요. 그 속에 손으로 한참 문질러야 떨어지는 쪼고만 비닐 봉투가 들어 있어요. 앞 면엔 학교와 반, 이름을 쓰고 뒷면에는 주의사항이라고 써있어요. 밤 알 크기로 한 군데만 찍지 말고 두 세 군데에서 똥을 찍어 넣으라고 쓰여 있는데 그대로 하면 비닐이 터질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서는 또 “만약 안가져 오는 놈은 여기 칠판 앞으로 나와서 반 전체가 보는 앞에서 똥을 누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똥 냄새를 맡는 듯 코를 쥐고 쩡그리며 웃었어요.

집에 와서 똥을 누르고 밥을 잔뜩 먹었는데 나오질 안아요. 방구만 자꾸 나오구요. 언니가 똥을 누러 간다고 후레쉬를 비춰 달랬어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 갔어요. 내가 똥 마려울 때 언니도 따라와 줬으니까요. 언니가 종이를 깔고 똥을 누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요.

“언니 나도 똥 좀 찍어 주라 응?”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지휘봉을 높이 드셨어요.

하지만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다 떨어진 소매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하봉이가 들어옵니다.

동철이와 영식은 아까 점심 시간에 열반에 가서 걸레를 빌려 왔어요. 너무 얄미워서 일러 주고 싶었지만 ‘축새’라고 놀림 받을까 봐 못 했어요.

나는 다 떨어져서 못 쓰게 된 엄마의 빨간 내의 아랫도리로 언니 한쪽 나 한쪽 나누어 만들어 왔어요. 내 앞쪽 해숙이는 얼굴도 예쁜데 걸레도 예뻐요. 흰천에 꽃무늬까지 그려져 있어요. 옷을 만들어도 될 예쁜 천이었어요.

갑자기 내 빨간 걸레가 부끄러웠어요.



240쪽에서부터는 사본본문입니다.

“안돼 선생님이 자기끼 직접 가져오랬어”

“똥이 안 나와서 그래 응?”

“내일 아침에 누면 되잖아”

알미운 언니는 꼭 이럴텐 모범생인 척 하고 그래요. 날 말뚱 속제는 전과를 그대로 베껴가면서.... “야 잘 비워, 얼굴에 비추지 말고 여기 똥에.....” 언니는 아빠가 변소 옆에 세워둔 싸리비를 꺾어서 똥을 찍어 넣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찌뿌리며 종이 끝을 잡고 나머지 똥을 똥똥에 집어 넣었어요. “똥당” 언니의 똥이 빠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똥 똥” 언니랑 나랑 모두 침을 뱉었어요.

이 날은 학교 변소 앞에
종이 한 장과 막대기를 든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똥똥투 2

아뽕싸, 오늘 아침에 똥을 누어야 한다는 걸 까맣게 잊고 그냥 학교에 갔지 뭐예요. 교문에선 선도부가 지키고 있으니까 다시 집에 갈 수도 없고 또 어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칠판앞에서...’ 하는 수 없이 연습장을 찢어 들고 변소로 갔어요. 똥이 찍을 게 있어야 하는데 두리번 거리고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화단에서 나뭇가지 한 개를 슬쩍 꺾었어요. 변소에 갔더니 오늘 따라 아이들이 꼭 찢어요 나처럼 똥을 안 가져 온 모양이에요. “야, 빨리나와 야! 시작중 처 야! 짜식아 너 변비냐?” 문을 ‘광광’ 두드리고 야단이었어요. 나도 가짜스로 한 칸을 차지하고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종이를 깔고 있는 힘을 주었어요. 눈물을 찔끔거리며 겨우 한 방울을 싸서 빨리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왔어요.

‘후우.....’ 얼마나 다행인지 아이들이 볼까 봐 더럽지만 어쩔수 없이 똥 봉투를 옷 속에 넣고 교실로 왔어요. 교실 안에서 웬지 자꾸 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침자습이 끝나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커다란 봉투를 들고 오셔서 거기에 똥봉투를 넣고 자기 번호에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씩 나가면서부터 코를 쥐고 봉투 끝을 달랑달랑 잡고 나왔어요. 동철이랑 연호가 나가면서 우리들에게 똥봉투를 들이밀며 장난을 쳤어요. 봉투가 너무 얇아서 똥이 얼마큼 들었는지 다 표시가 났어요. 하 봉이는 봉투가 볼록할 만큼 담아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코를 쥐고 웃었어요. 나는 내 번호에 동그라미를 칠때 연필 끝으로 물컹한 똥의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제발 내 똥 속에 회충이 없어야 할 텐데.....

봄소풍

“야, 내일 소풍 간대!”



작가: 김민수, 1994년 1월 1일 발행

“거짓말, 누가 그래?”

“1반 애들이 아침에 1반 선생님이 그랬대, 내일 우리가 최고 좋은 날이라고”

둘째 쉬는 시간에 정임이가 음악책을 빌리러 옆 반에 갔다 오더니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갑자기 모두 술렁 술렁 1반에서 풍금을 날라 오던 남자애들도 “아 내일 소풍 간단다아.....”

“이야!” 들썩들썩 와글 와글 교실안이 갑자기 시장 터처럼 변했어요.

“조용 조용히 해! 이놈들아 왜 떠들고 난리냐?”

“선생님! 내일 소풍가요?” 우리반 까불이 연호가 손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 내일 소풍간다”

“우와 아 쿵쿵쿵 우당탕탕” 아이들이 책상을 치고 합성을 질렀어요.

음악시간이 어느 때보다 신났어요.

“산 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오후 수업이 없는 날이라서 다행이에요. 3교시 4교시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아.....”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엄마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전옥아, 엄마 어디 가셨냐?”

“앞 집 수경이네 가셨어” 나는 쓴살같이 앞 집으로
달려 갔어요.

“엄마아! 헉헉 우리 내일 소풍간대
요.” 내 모습을 보고 앞집 아줌마랑
엄마가 놀리셨어요. “아이구 숨너
머 간다 숨너머 가”

엄마가 시장에 가셨어요. 나는
꼭 이번 소풍 김밥에 소세지를 넣어 달라고 엄마에게 부탁드렸어요.

엄마는 “비쌌텐데” 하시며 대답을 안하셨어요. 그림 과자 조금만 사고...., 나는 조그만 목소리로 대문
을 나서시는 엄마에게 덧붙였어요.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마루를 닦았어요. 오
늘은 마루를 닦는 일도 신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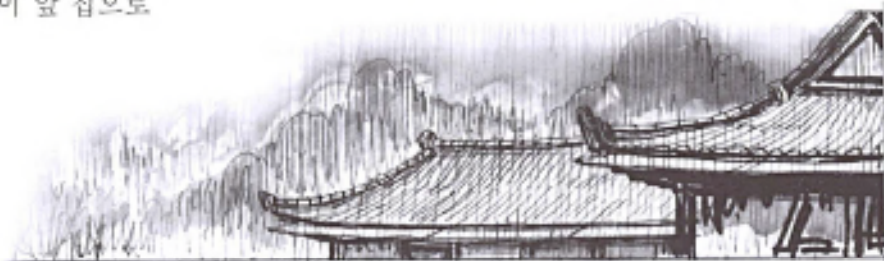
시장에서 오신 엄마는 사이다 두 병, 사탕 한 봉지, 마미 비스킷 두 개, 새우깡 한 봉지, 사과 두 개를
언니와 내게 골고루 나눠 주셨어요. 그런데 내 소풍가방은 반도 차지 않았어요. “언니 우리 엄마는 너무
해. 이것봐” 험령한 가방을 흔들며 입을 내밀고 말했어요. 언니도 실망한 얼굴이었어요. 내일 아침 엄마
가 용돈을 주시면 빵과자라도 사서 넣을까 봐요. 혜숙이는 바나나를 사 올꺼고 부반장 영선이는 선생님
도시락을 싸들고 엄마도 따라오실거예요.

저녁을 먹고 언니랑 나는 마루에 나와서 하늘을 봤어요. 비가 올까봐서요.

“일찍 자라 내일 소풍 갈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비 안 오겠지? 언니” “으응 별이 많이 뜨면 비 안 온대”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질 않아요.



소풍2

“짱뽕이 일어나라 소풍가는 날 늦잠 자냐?”

아이고 큰일 났어요. 어제 밤에 늦게 잤더니....., “다른애들 지금 소풍 떠날라고 운동장에 모였다. 짱
뽕이 너 이제 소풍 못간다” ‘푸카푸카’ 정신없이 세수를 하는 내 등뒤에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하고 긴 골목 하나로 마주하고 있는 학교 마당에서 마이크로 교장 선생님 말씀이 들렸어요.

이윽고 1학년부터 “하나 둘 셋 넷”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마루에 있는 소풍가방을 메고 학교를 향해 달렸어요. 드디어 학교 교문에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다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 봤는데 내가 슬리퍼를 신고 왔지 뭐예요. 우리반 애들이 드디어 나오고 “쨍뚱아” 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때 동철이가 내 슬리퍼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웃었어요. 아이들이 전부 나를 쳐다봤어요. “엄마아... 아...”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엉엉 엉엉 내 소풍”

“야 쨍뚱아, 너 왜우냐” 언니가 날 흔들어 깨웠어요 ‘후유’ 꿈이었어요.

엄마가 벌써 김밥을 싸고 계셨어요 계란, 시금치, 단무지 그리고 분홍색 소세지도 넣었어요.

우리들은 제비새끼처럼 엄마만 바라보고 앉았어요 군침을 흘리며 엄마가 찌푸리를 입에 넣어주시길 기다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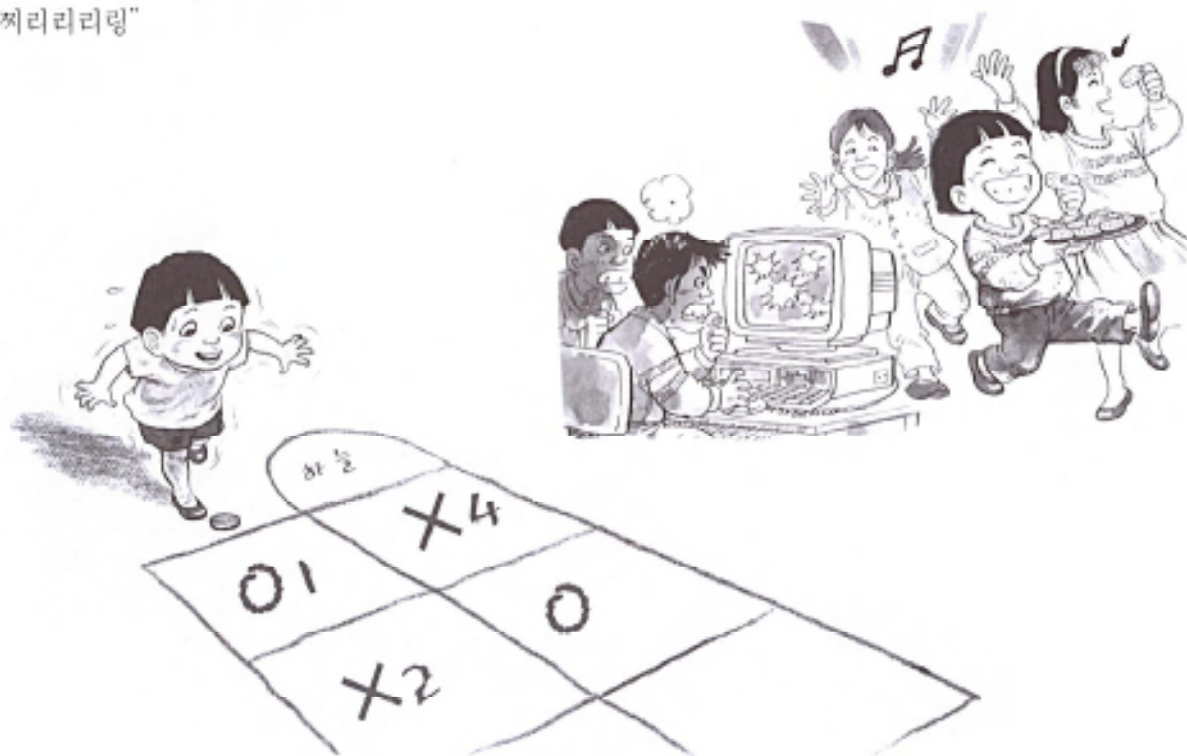
‘아 맛있는 김밥 매일 매일 먹었으면’

소풍갈 때 밥을 안 먹으면 가다가 쓰러진다는 아빠 말씀때문에 억지로 몇 숟갈 우겨넣고 엄마에게 50원을 받아서 학교앞 중앙상회로 향했어요 가게 앞에는 벌써 뭔가 사려는 아이들로 가득 찼어요. 이발소랑 붙어 있는 가게로 갈까 잠깐 망설였어요.

중앙상회에서 저변에 우리 반 정임이도 풍선을 뽑고 돈을 냈는데 안 냈다고 그래서 정임이가 울고 그랬어요. 다행히 정임이가 돈 내는 것을 봤다고 옆에 있는 몇몇 아이들이 말해서 도둑 누명을 벗게 됐지 만요. 아줌마가 너무 불친절하고요. 물건을 좀 오래 고르면 빨리 고르라고 막 야단쳐요. 그래도 물건이 다른 가게보다 많으니까요 오늘은 그냥 사기로 했어요. 소풍 날이니까요. 교실에는 벌써 절반도 넘게 아이들이 왔어요.

벌써부터 사탕을 까 먹고 입속에 ‘우물우물’ 거렸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출석을 부르는데 하봉이가 오질 않았어요. ‘하봉이 왜 안오는지 아는 사람?’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하봉이가 도시락을 보자기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어요. 운 것처럼 두눈이 빨갛고요. 선생님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찌리리리링”





교장선생님께서 목적지에 갈 때까지 줄을 맞춰서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 어린이가 되라는 말씀과 숲 속에 들어 가면 뱀에 물릴 염려가 있으니 절대로 자기반 자리를 떠나서 멀리 가지말라는 말씀 그리고 소풍은 교실을 자연으로 옮겨 놓은 야외 학습이니까 먹고 노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긴긴 훈시가 우리가 다리를 비비꿀때까지 이어졌어요.

이어서 올라오신 생활 지도주임 선생님말씀은 애들이 너무 떠들어서 “아픈 사람은 약, 양호선생님 어찌고 저찌고” 하는 소리 밖에 안들렸어요.

드디어 1학년부터 손을 흔들며 학교를 떠났어요 ‘와글와글 씨끌씨끌’ 모두들 ‘싱글빙글’ 하붕이도 동철이랑 장난을 치며 웃고 있어요.

신작로를 지나고 다리를 건너서 소풍을 가요. 우리 맨 뒤에는요, 솜사탕 아저씨랑 사진사 아저씨가 따라 가요. 아릅드리 소나무가 빙 둘러 있고 넓은 언덕이 펼쳐져 있는 곳에 도착하자 각 반끼리 모여서 빙 둘러 앉았어요. 수건돌리기도 하고 장기 자랑도 했지만 내 생각은 가방속에 소세지 넣은 김밥 생각으로 가득찼어요. “자 지금부터 점심시간이다. 맛있는 반찬은 혼자서 먹지 말고 친구들과 나누어 먹도록” 선생님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끼리끼리 모여서 도시락을 펼쳤어요. 흰밥에 반찬을 싸온 친구도 있었어요 함께 나누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커다란 소나무 아래서 나, 김진이 혜숙이 정임이 양순이 우리 5총사는 우정이 변치말자고 다짐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4학년 전체가 모여서 장기자랑을 했어요. 우리 반은 하붕이랑 동철이가 나가서 곱사 춤을 추었어요. 동철이는 제 소풍가방을 등에 넣고 춤을 추다가 가방이 쏙 빠져 나왔어요. 여자아이들이 ‘데굴 데굴’ 잔디 위를 구르며 웃었어요.

보물찾기를 끝으로 즐거운 소풍은 끝났어요. 돌아오는 내 가방속에는 동생들에게 주려고 먹지 않은 사탕과 과자 부스러기가 텅굴고 있었어요. 엄마가 주신 용돈도 쏙둑이와 사진값을 빼고는 그대로 있었어요. 바알간 깃털이 달린 뽀뽀 풍선을 한 개 사고 싶었지만 돈을 모아서 자석필통을 사려고 꼭 참았어요.

책상

삐뚤 삐뚤 공보 책상

아무리 줄을 맞춰도 자꾸만 삐뚤어져요.

한쪽 눈을 감고 다시 맞춰 보고

밀었다가 뺐다가

다시 맞춰도

왼쪽을 맞추면 오른쪽이, 오른쪽을 맞추면 왼쪽이,

삐죽이 나오는 우리들 책상



새 학기가 시작 되어서 자리를 바꿨어요 이제 월요일마다 한 줄씩 옆으로 돌아가며 앉기로 했어요.

책가방을 챙겨서 새 짝궁과 새로운 자리로 갔어요 책상 밑에 공책이랑 필통을 넣었더니 “와르르 쿵”

다 쏟아졌어요. 연필, 지우개, 삼각자가 이리뒤편 저리 뒤편이었어요. 아이들의 “우하하하” 웃었어요. 흩어진 학용품들 다시 담으며 나도 웃었어요.

갑자기 “우당탕 쿵”

그렇지 않아도 뚱뚱이라고 놀림 받던 하봉이가 의자에 털썩 앉자마자 결상다리가 부러졌어요.

“정하봉은 뚱뚱이래” 책상을 쿵쿵 치며 웃는 아이, 배꼽을 쥐고 놀려대는 아이들, 너무 아파 죽겠다며 하봉이가 엉덩이를 만지며 일어나는데 “하봉이 이놈 너 그 결상 고쳐놔라 살살 앉아야지 임마 우리반 결상 남는 것 하나도 없겠다.” 선생님의 목소리.

둥그런 얼굴에 까만 왕방울 눈, 집많은 하봉이의 두 눈에 그렇그렇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책상 2

내 책상 대진이랑 싸웠어요. 국어 시간에 글씨를 쓰는데 대진이 책이랑 팔뚝이 너무 내쪽으로 와서 “야, 너 좀 비켜 좀아서 나는 못 쓰겠잖아” 그랬더니 대진이가 “야, 이게 네 책상이냐 네 팔뚝도 내쪽으로 많이 왔잖아” 그랬어요. 대진이는 수업시간에 팔을 더 넓게 벌렸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내가 화가 나서 연필로 ‘쿵’ 찔렀어요. 선생님께 혼날까 봐 소리내지 못하고 싸우다가 쉬는시간에 마침내 뽕을 제서 책상을 갈랐어요. 내가 뽕을 찔렀더니 대진이가 내 쪽이 더 넓다고 하면서 대진이가 제가 다시 찔렀어요. 이번엔 대진이 쪽이 훨씬 넓어 보였어요. 대진이는 제쪽을 찔땀 손을 있는 힘껏 쭉쭉 뻗어서 제더니 내 쪽을 찔땀 대충 찔렀어요. 그래서 내가 자로 다시 재자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시면 혼나니까 색연필로 줄을 그었어요. 우리 선생님은 책상에 줄을 그으면 화내세요.

“나라가 나뉜 것도 서러운데 책상까지 나누냐! 이놈들, 사이좋게 한 책상에서 공부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커서 어떻게 동일을 하겠냐?” 하시면서 교탁을 무섭게 “광광” 치세요.

그런데 셋째 시간에 대진이가 내게 연필을 빌려 달래요. 책상때문에 써워서 말도 하기 싫었는데 ‘쫄보’라고 놀릴까 봐 빌려 줬어요. 내 연필은 문화연필 표준심인데 질게 나오니까 대진이는 항상 내 연필을 빌려 써요.즈네 집도 부자면서 왜 항상 싸구려 열은심만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을 운동회

드디어,내일은 운동회날, 오늘 총연습을 했어요. 무용을 맡으신 1반 선생님께서 오늘 한번도 안틀리고 잘 했다고 내일도 오늘처럼 잘 하라고 연습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셨어요. 1반 선생님은 예쁜 선생님인데 운동회 연습을 하는 동안 호랑이 선생님이로 변해 버렸어요. 목소리도 쉬어서 잘

나오지도 않으셔요. 우리 4학년 여자들은 대나무로 만든 둥그런 원에 판작이를 달고, 모여서 큰 원도 만들고 작은 원도 여러개 만들면서 무용을 해요. 선생님은 그것을 '마스게임'이라고 하셨어요. 4학년 전체가 청군 백군으로 나누어서 하는 공 터뜨리기도 있어요. 공을 넣어서 만든 오자미로 맞은 편 장대에 걸린 공을 터뜨리는 것인데 먼저 터뜨리는 편이 이기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내가 들어 갈 만큼 큰 대나무소쿠리를 두개 모아서 문종이를 여러겹 발라서 공을 만드신 다음 청군의 공에만 파란색을 칠하셨어요. 우리는 홀수 번호와 짝수 번호를 나눠서 청군 백군을 정했는데 나는 청군이에요. 그런데 운동회때문에 우리 5총사가 원수가 되어 버렸어요. 양순이랑 해숙이는 백군인데 양순이가 백군은 백조, 청군은 청개구리라고 해서 싸웠어요. 이제 서로 말도 하지 않게 됐어요. 내일 청군 백군 시합에서 청군이 꼭 이겨서 양순이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는데 걱정이예요. 선생님들께서 운동장에 만국기를 달고 조희대 옆으로 천막을 세우시는 걸 보며 진짜로 운동회를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엄마랑 함께 중앙상회로 머리띠와 운동복을 사러갔어요. 작년까지 언니 것을 물려 입었는데 이제 작아서 못 입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게 맞는 운동복을 입고 싶었는데 엄마는 6학년까지 입어야 한다고 큰 것을 사주셨어요. 엄마는 신발 살 때도 옷을 살 때도 '큰 것 큰 것' 하셔요. 내가 금방 크니까 그런다고 하셔요. 하지만 옷이 맞기도 전에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는데... 집에 와서 운동복을 입어 봤어요. 운동팬스가 너무 커서 배가 볼록해 보였어요. 너무 창피해요. 뚱뚱한 내가 더 뚱뚱하게 보였어요.

운동회2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서는 음악소리가 흘러
나왔어요.

맑고 파아란 하늘에
펼쳐지는 색색깔의 만국기
들이 운동회를 신나고 즐겁게
해주었어요.



"깃발이 춤을 춘다 우리 머리 위에서 달린다 넓은 바다 푸른 하늘 마시며"

벌써 교문앞엔 솜사탕, 냉차, 풍선을 파는 아저씨들이 꼭 차 있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흰바지에 흰옷도리, 흰운동화, 장갑까지 하얗게 끼셨어요. 목에는 모두 하얀 호루라기를 걸고 계셨어요.

우리는 모두 청색 백색 머리 띠를 띠고 갑장 땀쓰에 흰 반팔 티를 입고 하얀 덧신을 신었어요 마치 새로운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북도에 들어서는데 양순이하고 해숙이가 꽃노리개를 한 개씩 들고 팔장을 끼고 '뽀' 지나갔어요.

교실 문 뒤에선 동철이하고 영식이가 화약을 터트리며 들어오는 아이들을 놀라게 해주었어요. 선생님 인줄도 모르고 장난을 계속하다가 다 뺏겼지만요. 선생님께서는 오늘 불량식품을 사 먹거나 화약같이 위험한 장난감을 사는 학생은 무조건 '변소청소 1주일'이라고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 육성회장님, 내빈 인사까지 다 끝나고 운동회가 시작됐어요. 1학년들이 우리 학교 교모인 노란 모자를 쓰고 손가락에 큰 꽃봉오리를 달고 나와서 노래에 맞춰 무용을 했어요. 어른들이 "아이고 귀여워라" 하시며 박수를 치셨어요. 우리 4학년이 무용을 할 때는 검정 도화지로 만들어 영국신사처럼 쓴 모자가 줄이 끊어지고 바람에 날아가는 바람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팔팔대고 웃었어요. 나도 모자가 날아갔는데 끝나고 호랑이 선생님께 혼날까 봐 걱정됐어요. 공 터뜨리기는 우리 청군이 이겼어요. 나는 양순이에게 혀를 "메롱"하며 악을 울렸어요. 점심을 먹고 엄마를 졸라서 나팔소리 나는 풍선도 한 개

사고 오원짜리 냉차도 한 잔 마셨어요. 드디어 청군 백군 이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은 젓먹던 힘까지 다해서 소리를 지르며 응원했어요.

“청군 이겨라!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달리는 곳까지 뛰쳐 나와서 응원을 해서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어가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앞서 가던 청군 선수가 그만 넘어졌어요. 응원을 하던 청군과 구경꾼들 모두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 했어요. 이어달리기에서 저서 운동회는 결국 백군이 이겼어요. 청군이 못 이겨서 아쉽긴 했지만 가을운동회는 즐거운 축제예요.

회 충 약



“주변 물 주전자하고 컵하고 이리 가지고 와” 선생님께서 약봉투 같은 것하고 무슨 쪽지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날이 온 거예요. “지금부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약을 먹어라” 모두들 쭈 죽은 듯 조용했어요. 나도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어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

“양 동철, 야 너는 회충이 풀떡거리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갑다”

선생님께서 동철이에게 약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키득 키득”

아이들이 입을 막고 웃었어요. 아무도 소리내어 웃진 못했어요.

“정하봉, 김인섭, 최복순, 신진호, 박양순.....” 한 사람씩 선생님께 불러가서 한 움큼씩 약을 먹었어요. 연호가 약을 삼키지 못해서 물을 몇 번이나 다시 먹고 ‘쨍쨍’ 거렸어요.

“짱뚱이 요충” 내 이름이 불러지는 순간 난 쥐구멍이라도 들어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해숙이도 요충이 있다고 걸려서 위로가 되었어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학교에서 요충이 있다고 약을 먹었다고 했어요. “아이고 어쩐다냐 그럼 동생들도 약을 다 사다 백여야 짓다.” 그런데 언니는 걸리지 않았대요. 이상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요충은 밤에 똥구멍으로 기어 나와서 같이 자면 다 옮는다고 했는데 왜 언니는 약을 먹지 않은 건지?....

난 로

“오늘은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서 난로를 피우겠습니다. 각 반 주변은 난로를 피울 수 있도록 본관뒤 창고에서 쏘시게가 조개탄을 타 가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야! 주변 난로 피운데 야, 주변 빨리가!”

교실안은 갑자기 술렁거렸어요. 주변이 서둘러서 바케스를 들고 나가고 몇 몇 아이도 참다못해 덩달아 따라 나갔어요. 아직 차가운 철 덩어리인 난로가에 벌써부터 ‘우르르’ 물러 서로 자리 다툼이 벌어졌어요.

“야 우리 선생님 오셨나? 반장 교무실에 가 봐 .



아이 참... 선생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변이 불쏘시개와 조개탄은 타 왔는데 선생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모두들 발을 동동구르며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선생님 오신다야!.....”

복도까지 나가서 기다리던 몇몇이서 뛰어왔어요. 모두들 한 발짝씩 물러서지만 난로걸을 떠나지 않고 병들러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난로에 불을 지피셨어요. 난로 옆에 책상을 한 팔 켜 물르는 바람에 내 책상자리는 난로에서 더욱 멀어졌어요.

‘토독토독’ 쏘시개가 타고르고 조개탄 연기가 금방 교실안을 가득 채웠어요. “문열어라 창문 다 열어!” 난로를 놓고 처음 피우는 거라서 그런 모양이었어요.

“찌리리 리지리리.....앙”

시작종이 울리고 선생님께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번 더 고함을 치신 뒤에야 우리는 마지못해 제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난로 옆에 앉은 양순이 얼굴이 벌겋게 되어 갔어요.

3교시가 끝나자 도시락을 들고 ‘우르르’ 난로로 몰려갔어요. 서로 밑에 놓으려고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4교시 산수 문제 풀이보다 난로위의 도시락으로 생각이 반절쯤 가 있는데 “쿵쿵 이게 무슨 냄새야..”. 코를 ‘벌름벌름’ 맨밑에 놓은 도시락이 타는 냄새였어요.

“선생님 밥타요오...”

내일은 양순이가 고구마를 갖고 오기로 했어요.

용의검사

우리 학교는 한달에 한번씩 용의검사를 해요. 내일도 용의검사를 하는 날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손뚱,

발뚱, 머리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더운물을 한술 데워서 썬가로 갔어요.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고요. 갈라터진 손을 더운물에 불려 ‘뿌득 뿌득’ 빗겨냈어요. 근데 때만 자꾸 ‘복복’ 일어나요. 엄마의 크림과를 몰래 열고 손등에 바르고 또 발라 봤어요. 땀물만 ‘찍찍’ 밀리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겨울만 되면 거북이 등 같은 내 손뚱에 용의검사가 싫어요.

* 불조심 리본 안착고 가서 선도에게 이름 적혔음. 내일은 잊어 버리지 말아야지.

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자랐던 때 장날 엄마가 사오신 누런 부대중이에 싸인 파베기를 6남매가 한개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더 먹고 싶은데...’ 손가락에 묻은 설탕가루를 ‘쪽쪽’ 빨면서

‘이 다음에 커서 돈을 벌면 파베기를 배가 터지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체검사를 하는 날 좀 덜 떨어진 메리야스를 골라 입으려다 지각했던 친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생라면 한개로 아침자습시간을 온통 소란스럽게 만들어 놓던 친구. ‘라면스프’ 라도 얻어 먹으려고



“나 좀 나 좀” 하면서 손바닥을 내밀었던 우리들,
무엇이든 넘쳐나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 줄까요?

곤충채집

곡식 낱알을 터트릴 것처럼 뽕뽕한 햇벌이 온 들을 내리쬐고 있어요.
메뚜기도 ‘아작아작’ 갈아먹던 벼잎뒤에 살갓을 쏘는 듯한 따거운 벌
을 피해 매달려서 배를 ‘불룩불룩’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지붕에 뿔구는 호박도 터질 것 같아요, 담 근처 해바라기만 넓죽
한 얼굴을 꽃꽂이 들고 햇벌과 마주 보고 있어요.

해자네 과수원위로 붉은 여름 햇살이 사과속을 파고 들어가
요. 그래서 햇살을 먹은 사과는 바알장게 물이 드나봐요.

여름 방학 숙제로 식물 채집과 곤충 채집이 있어요. 방
학이 시작되자마자 식물 채집은 다 했고요. 책속에 차
곡차곡 넣고 다듬이 돌로 눌러 냈어요. 이제 다 마
르면 시험지에 놓고 채집한 곳 날짜 이름을 써
넣을 거예요. 비름, 명아주, 왕꿀풀, 오이풀,
쇠무릎, 열가지도 넣어요. 어제 한번 봤는데
요, 아주 잘 말랐어요. 부서지지 않게 조
심조심 다시 넣어 뒀어요.

들판으로 곤충채집을 하러 친구들이
랑 모였어요.

영식이가 모기장으로 만든 잠자리채
를 가지고 왔어요. 나도 만들려고 했는데
엄마가 모기장이 남은 쪼가리가 없네요.
영식이가 잡아서 한 마리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어제까지도 까맣게 폐지어 날던 그
많은 잠자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잡으러 오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 보이질 않아요. 드디어
태수네 논 옆으로 흐르는 도랑가에서 검은 잠자리 한마리를 잡았어요.

“야, 혜숙아 주머니 이리 내”

영식이가 얼른 혜숙이에게 주었어요. 나는 알아요. 영식이가 혜숙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즈네 집에서 자두를 따 왔는데 제일 맛있게 생긴 것을 혜숙이에게 주었어요.

나는 논에서 메뚜기와 방아깨비를 잡았어요.

빨간 고추잠자리를 영식이가 잡았는데요 혜숙이에게 주다가 혜숙이가 놓쳐서 날아가 버렸어요.

혜숙이는 울상을 지었지만요 나는 속으로 ‘썸뽕’이었어요. 혜숙이는 제 손으로 하나도 잡지 못하고
“엄마야”하면서 소리만 지르다가 내가 잡으려는 잠자리도 펄꾸게 했어요.

영식이 나빠요. 겨우 내게 날개가 한짝 떨어진 잠자리를 한마리 주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영식이가
준 잠자리를 날려 버리고 혼자 집으로 왔어요.



靑・壯年 時期의 나의 삶

김 안 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 나의 삶과 생애구분

나는 1937년에 慶北 開慶에서 태어나 일제치하에서 幼年期를 보냈고 해방되던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6학년중에 6·25동란을 당했고 이듬해 1951년에 중학교에 들어갔다. 1954년에 安東으로 가서 師範學校를 졸업하고 1957년에 바로 서울로 올라와 大學에 진학했다. 2학년 때 징집을 받아 陸軍에 입대·복무하였고 1962년에 서울대학교 文理科學 物理學科를 졸업하였다. 일년간 出版社와 고등학교에 봉직하다가 1963년에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입학하여 行政學·地方自治學 등을 전공한 뒤 1965년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內務部 研究員과 대학원 助教를 역임하고 1969년에 美國으로 유학을 떠났다. 오하이오 州立大學인 신시내티大學校에서 都市計劃學 碩士學位와 地域經濟學 博士學位를 취득한 후 귀국하였다. 1972년에 서울대학교 전임강사로 취임하여 주로 環境大學院에서 강의하면서 학과장·연구소장·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2002년 8월에 教授停年을 맞게되며, 이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마치게 될 것이다.

나의 생애를 통틀어 보면 1937년부터 1971년까지의 34년간은 成長·修學期이고 1972년부터 2002년까지의 31년간은 社會活動期이며 그 이후는 休息·整理期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靑年期가 시작된 20세는 1957년이었고 壯年期가 끝나는 59세는 1996년이였다. 따라서 1960년대의 시기는 나에게 23세에서 32세에 걸친 靑年期에 해당하고, 1970년대는 33세에서 42세에 걸친 靑・

壯年期이며, 1980년대는 43세에서 52세에 걸친 壯年期에 해당하고 있다. 이 30년간의 시기는 비록 한 世代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가적으로는 제1공화국 말기로부터 제6공화국 초기에까지 이르는 격변의 시대였고, 나 개인적으로는 학업을 닦고 사회기반을 구축하며 많은 실적을 쌓은 바쁘고도 보람찬 시기였던 것이다.

2. 1960년대와 나의 청년기

나는 20세가 되던 1957년에 처음 서울에 온 촌놈이었기에 모든 것이 신기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많았으며, 실수도 허다했다. 1960년대 동안에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고 軍服務도 마쳤으며 몇 가지 職業도 가져왔다. 고향에서 부모님을 뵈시고 와서 모시기 시작했고 結婚을 하여 자녀도 얻었다. 가정교사·하숙·자취·전세생활 등을 거쳐 29세가 되던 1966년에 처음 나의 문패를 붙인 自宅를 구입하여 입주했다. 주로 電車와 버스를 이용하다가 전차가 철거된 1968년 이후에는 버스에 의존하였다. 구두·시계·양복·넥타이·안경을 처음 착용하였고, 중국음식·생선회·양식·불갈비 등을 처음 먹어보았으며, 술과 담배를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택시·선박·비행기도 처음으로 타보고 仁川에 가서 바다도 처음 구경했다. 라디오·선풍기·전화·텔레비전도 처음으로 구입하였다. 서울사람들에 비해 모든게 늦은 출발이요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서울에 와서 말도 행동도, 그리고 외모도 완전한 村놈이어서 대학 동급생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다. 그래서 비슷한 다른 촌놈 2, 3명과 주로 어울려 다녔기 때문에 촌놈을 벗어나는데 오

랜 시간이 걸렸다. 흡사 美國에 가서 한국사람들 하고만 지나다 보면 영 영어가 늘지 않는 것과 같았다. '나사점'을 양복점인 줄 모르고 도구인 나사(螺絲)를 파는 가게인 줄 착각한 것, '갈비'를 소고기 음식이 아닌 소나무 마른 잎으로 이해한 것 등이 이 때에 생긴 일들이다. 방학이 되어 고향 시골을 가니 금의환향이요 개천에 용 난 격이었다. 우리 마을이 생긴 이래 大學生이 처음 탄생하였으니 신기한 동물 구경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동리처녀들이 담 너머로 훑쳐보는 것은 무척이나 좋았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한 家庭教師란 직업은 대학원 졸업시까지 계속되었으니 장장 8년의 경력을 쌓은 셈이었다. '들어가면 지옥이요(入則地獄) 나오면 천당[出則天堂]'이라고 내가 지은 직업이 가정교사직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무렵에는 의례껏 가정은 중류이상이고 대상학생은 공부를 못했다. 힘은 들고 성적은 오르지 않으니 학생 부모님 보기가 민망하지만 나가자니 막막하고 머물러 있자니 가시방석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니, 하나는 出版社이고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였다. 졸업 직후인 1962년 3월에 출판사인 民衆書館의 편집사원으로 입사했다. 직장이 많지 않아 취업하기가 힘들었던 시대라 약 2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다. 여기에서 책을 편집하는 방법과 교정을 보는 기술을 익혔고 印刷에 관한 지식도 얻게 되었으며, 이는 후일 대학교수로서의 著作活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때 또 하나 얻은 것이 음주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서 오늘날 斗酒不辭의 경지에 이른 공로는 여기에 기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들어간 곳이 首都女子 師範大學(현 世宗大學) 부속 女子高等學校였다. 數學教師 1명을 뽑는데 물경 150명이 몰려와서 物理學科 출신이라 무척 불안하였다. 시험을 잘 쳤는지 1차 합격을 했고, 합격자 10명을 불러 면접도 하고 실제 강의도 하게 해서 최종 한 명을 뽑았으니, 그것이 바로 나였다. 빨간색갈의 교모와 교복을 입은 여고생 2학년에게 幾何를, 3학년에게 代數를 가르쳤다. 학생들 얼굴을 마주보기가 부끄러워 天井이나 창 밖을 보면서 수업을 하였다. 사투리를 쓰는 부끄럼 많은 선생이라 '경상도 총각'이란 별명이 붙었다. 주말이면 가끔 학생들이 그룹단위로 꽃이나 선물을 사들고 하숙집에 놀러 오기도 하여 꽤나 재미가 있었다.

학교 당국자로부터 학생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았다. 이듬해 교사직을 떠나 大學院에 진학했다. 가끔 가르치던 여고생들이 대학원으로 찾아와 빵을 사 달라며 응석을 부리곤 했다. 선생님, 선생님 하기에 '이젠 선생님이 아니야, 나도 학생이라'고 하니 '그럼 우리하고 같이 놀면 되겠네요' 하고 웃기곤 했다. 몇 달 지나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술한 파란곡절과 회비의 사연을 거쳐 대학원을 졸업했다. 고향에서 부모님을 뵈시고 와서 淸涼里 전셋집을 얻어 내가 家計를 책임 진 어려운 서울살림을 시작했다. 결혼할 나이어서 중매를 통해 선을 많이 보았다. 맞지가 않아 거절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빨리 결혼해야 하지만 집안 형편을 보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누가 시집을 오는지 고생끼나 하겠다는 생각으로 미루어오다 보니 나이가 28세나 되었다.

그래도 연분이 있었던지 중매로 고향처녀와 약혼을 하고 1966년 1월 11일 서울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은 편이었고, 손님들에게 당시의 유행대로 떡을 드렸다. 결혼비용은 일체 신랑이 책임지는 대신에 결혼부조금은 양가 것 모두 신랑이 갖기로 한 약속에 따라 부조 봉두가 든 가방을 들고 濟州道가 아닌 釜山을 향해 둘이 기차를 탔다. 海雲臺호텔 첫날 밤에 가방을 열고 부조금 계산부터 시작했다. 신부는 봉두에서 돈을 꺼내어 이름과 금액을 부르고 신랑은 노트에 이를 받아 기록했다. 서울에 와서 벌린 結婚 빚을 갚고 나니 꽤 남아서 梨花洞에 있는 좀 좋은 집으로 전세를 얻어가는 밑천이 되었다. 처음 新婦를 淸涼里 전셋집으로 데리고 가니 기가 차는 모양이었다. 부모님과 넷이서 두 방을 쓰며 살았는데, 비가 오면 천장이 새서 그릇을 여기저기 놓고 앉아 있으니 흡사 옛 小說에 나오는 흥부집 장면 같았다.

그 동안 지숙한 돈과 전셋돈, 그리고 妻家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합쳐서 나의 집, 自家를 처음으로 구입했다. 昌信洞 산비탈에 있는 조그만한 洋屋 단독주택이었다. 방이 세 개, 부엌, 마루, 화장실, 마당이 있어 처음에는 무척이나 크게 느껴졌다. 내 집을 갖게 됐다는 기쁨에서 종로 3가에 나가 문패를 아주 크게 만들어 大門에 달아놓으니 좁은 얼굴에 넓은 안경을 쓴 여자모습이었다. 이 지역 일대는 후일 재개발이 되어 모두 서민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옛모습이 사라졌지만 여기에서 8년 동안 살면

서 맺은 인연과 추억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부모님과 처, 그리고 두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꿈에만 그리던 美國 留學의 길을 떠났다.

1969년 9월 20일이었다. 든기만 했던 美 大陸에 들어와 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웠다.

자동차가 가는 곳마다 넘치고 상점에 가니 그렇게도 귀한 美製 물건이 한없이 많았으며, 저절로 빨래를 하는 自動洗濯機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秋收感謝節날 미국인 집에 초대 받아가서 칠면조 고기를 처음 먹어보기도 했다. 영어가 약하여 강의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미국인 학생들의 노트를 빌려 공부하였으나 죽으라고 했더니 첫 學期 성적은 우수하게 나와 안심했다. 주말이면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 맥주를 마시며 우리말로 떠들어서 답답하고 외로움을 달리곤 했다. 눈이 많이 내리는 除夜에 韓人會 망년회가 열렸고, 미국에서의 첫 해를 이렇게 하여 보냈다.

3. 1970년대와 나의 청·장년기

1970년대는 나에게 있어 33세에서 42세까지의 靑·壯年期이고 국가적으로는 朴正熙 大統領이 통치한 제3·4공화국 시기였다. 미국에서 귀국하여 서울대학교의 專任講師로 발령 받았고 助教授로 승진했으며, 가정적으로는 미국에서 둘째 딸이 태어났고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셨다. 자택을 昌信洞에서 祭基洞으로, 다시 上道洞으로 옮겼으며, 서울대학교도 東崇洞에서 冠岳山 기슭으로 이전하였다. 1974년에 서울에 地下鐵 1호선이 처음 개통되었고, 197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비명에 서거하는 불상사도 있었다. 냉장고 구입, 結婚 主體 집전, 라디오 및 텔레비전 출연, 국제회의 참석, 유럽제국 방문 등이 모두 이 기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사건들이었다. 이와 같이 나에게 있어 1970년대는 發展과 擴大를 가져다 준 값진 시기였고 끝없는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碩士學位를 받고 다시 博士課程을 모두 마친 다음에 중도에 미국으로 건너 온 아내와 그곳에서 태어난 딸과 같이 1972년 1월 14일에 귀국했다. 가족이 모두 모이니 일곱이나 되는 大食口였다. 집이 너무 좁아서 2년여 동안 高密度의 주거생활을 하다가 2년간 모은 적금과 은행 대출금을 합쳐 祭基洞의 2층 양옥을 사서 이사했다. 다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이곳에서 부모님이 모두 돌

김안제의 삶과 관련한 사건이 처음 발생한 날짜와 그 내용

()안은 나이

- 1936. 7. 28(1) 병자년 음력 6월 10일 문경시 흥덕동
깃골마을에서 출생함
- 1940. 7. 15(5) 흥덕말 영강에서 수영을 함
- 1941. 2. 1(6) 노래가락 '각설이 타령'을 배워 부름
- 1945. 4. 1(10) 문경시 호서남국민학교에 입학
- 1945. 11. 1(10) 만화책 '홍길동'을 빌려서 봄
- 1945. 12. 15(10) 소설책 '공쥐 팔쥐'를 빌려서 봄
- 1946. 9. 5(11) 담임선생님이 교환권을 주어 운동화로 바꾸어 신음
- 1946. 10. 5(11) 숙부모님께서 평창에서 선물로 가져온 바나나를 먹음
- 1947. 9. 5(12) 흥덕리말판에 가서 머리를 깎음
- 1948. 3. 30(13) 무동(無動)·무성(無聲)영화 '심청전'을 관람함.
- 1948. 5. 15(13) 점촌읍내 시장터에서 곡마단(말광대)을 구경함
- 1949. 9. 12(14) 문경을 누남덕에 버스를 타고 감
- 1949. 11. 1(14) 집에서 탄 홍시를 신작로변에 놓고 판매함
- 1949. 12. 3(14) 집에서 가족들과 화투를 배워서 친
- 1951. 6. 20(16) 중학교입학 국가고시를 봄.
- 9. 10(16) 문경중학교에 입학함.
- 1951. 12. 1(16) 친구들과 점촌 중앙교회에 나감.
- 1952. 1. 31(17) 동리 맹인점술가 권씨의 점술을 돕고 수고비를 받음
- 1952. 6. 29(17) 부모님과 기차를 타고 상주에 감
- 1954. 4. 5(19) 안동에 유학차 가서 친구들과 하숙을 시작함
- 1954. 4. 20(19) 안동시내 옥옥탕에 친구들과 들어가 목욕함
- 1955. 2. 28(20) 안동시 평화동 장한상군의 가정교사로 들어감
- 1956. 1. 10(21) 국가검정고시 응시차 서울에 감
- 1956. 1. 12(21) 서울에서 전차를 탑
- 1956. 4. 5(21) 가정교사며 주인이 안동시내 식당에서 음식을 사줌
- 1957. 3. 20(22) 국민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함
- 1957. 4. 10(22) 기성화 구두를 사서 신음
- 1957. 5. 10(22) 서울시내에서 친구들과 택시를 타봄
- 1957. 6. 1(22) 가정교사며 주인이 선물한 손목시계 받
- 1957. 6. 30(22) 효창동 자취택 주인이 원효로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사줌
- 1958. 7. 31(23) 육군 입대를 위해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함

1958. 9. 15(23) 육군 수도사단 제7276부대가 있는 경기 포천으로 감
1961. 3. 5(26) 중학교 강사로로 양복을 맞추어 입음.
양복과 함께 넥타이를 맴
1962. 4. 7(27) 출판사 민중서관 편집사원으로 입사하여
동료들과 술을 마심
1963. 4. 21(28) 가정교사댁 가족들과 인천월미도로
배를 타러 감
1963. 5. 5(28) 대학원 동기들과 종로5가 식당에서
갈비를 먹음
1964. 8. 1(29) 지방 출장시 군청의 관용차를 탐
1964. 8. 1(29) 청량리 황씨댁 가정교사시 라디오를
사서 비치함
1964. 12. 1(29) 친구들과 종로5가 주점에서 양주를 마심
1965. 7. 17(30) 공군수송기를 타고 제주도에 감
1965. 7. 18(30) 제주도에서 생선회를 먹어 봄
1966. 1. 11(31) 황연자양과 서울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림
1966. 3. 10(31) 이학동 전세방에 친구의 주선으로
선풍기를 비치함
1968. 1. 27(33) 서울 창신동 자택에 전화통 가설함
1968. 9. 1(33) 시력의 악화로 안경을 맞추어 씌
1969. 4. 10(34) 흑백텔레비전을 구입하여 비치함
1969. 9. 20(34)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네티대학원으로
유학감
1977. 3. 5(43) 그랜드호텔에서 결혼주례를 봄
1978. 7. 1(43) 상도동 자택에 냉장고 구입 설치함.
1982. 3. 12(47) 마크V 에코노미 자가용 승용차 구입
1983. 2. 1(48) 골프연습장에 등록하고 골프를 배우기
시작함.
1992. 7. 13(57) 두만강에 들어가 손발을 씻고 북한땅을
바라봄
1992. 7. 14(57)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구경함
1994. 10. 24(59) 만보기를 착용하여 보행수를 매일 기록함.
1995. 8. 4(60) 친구가 Telipa30 팩시밀리를 기증 집에
설치함.
1996. 5. 25(61) 7년 기한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함
1996. 7. 20(61) 회갑을 맞아 친지·가족과 회갑기념
저녁회식을 함.

《한 한국인의 삶과 발자취》(초벌 김안재 박사 회갑기념사업회, 박문
각·호정인쇄사, 1996)중에서 발췌

아가시어 고향 開慶 선산으로 되시었다. 1976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논문을 제출하고 어려운 博
士學位를 받아 돌아와서 부모님 산소를 찾아가 學
位證書를 묘소 앞에 놓고 인사를 드렸다. ‘아무 학
벌도 없는 가난한 농부였던 당신들의 아들이 술한
고통과 인내를 딛고 드디어 博士가 되고 教授가 되
었으니 부디 웃으시면서 황생극락 하십시오.’

1977년 3월에 난생 처음으로 結婚式의 주례를
봤다. 강의도 오래했고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도
자주 했는데 주례석에 올라서니 긴장 될 뿐만 아니
라 몸도 말도 떨리기 시작했다.

겨울이라 추운 탓인지는 몰라도 신랑도 떨고 신
부는 더 떨고 주례도 함께 떨었다. 그 이후 술하게
주례를 봤지만 아직도 다소 긴장되는 것은 아마 결
혼식이라는 것이 경건한 人倫之大事라는 특성 때문
이 아닌가 한다.

祭基洞에서 冠岳山 서울대학교까지 출퇴근하기
가 힘이 들어 학교 가까이 이사하기로 작정하고 집
을 보러 다녔다. 奉天洞 중턱에 괜찮은 집이 있어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주었다. 한 달
뒤에 팔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해약을 요구하
기에 목덕방 소개자와 같이 엄중히 항의하고 해약
을 해 주었다. 계약금은 목덕방의 권유에 따라 倍
로 하여 돌려 받았다. 한 달만에 200만원을 벌었
다. 교수직업보다 본래 더 나은 수입이었다. 아내
한테 어디 또 해약 당할 집 좀 알아보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그러한 행운은 다시는 오지 않았다.
다시 구하여 이사 간 집이 上道洞에 있는 2층 양옥
이었다. 마당도 넓고 집도 커서 우리한테는 대궐
같았다. 직장도 비교적 다니기가 쉬웠고 獅子巖이
란 절과 市場도 가까이 있어 생활하기가 편리했다.

25세였던 1962년부터 마시기 시작했던 술과 29
세였던 1966년부터 피우기 시작한 담배는 각각 한
번씩, 그것도 짧은 기간동안 끊어 본 경험이 있을
뿐 쉬지 않고 마시고 피워왔다. 급성간염으로 2주
정도 입원했을 때 술과 담배를 끊었다. 끊었다기보
다 공급이 되지 않는 공간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
다. 이를 계기로 하여 스스로의 意志로 끊었더라면
그만 좋았을 것을 이를 이후 이루지 못하고 끝내
오늘에까지 즐기게 지속하여 왔다. 술은 일주일
에 3회 내지 4회 정도, 그것도 주로 저녁에만 마시
니 크게 불편한 것이 못되지만 담배는 그러하지 못
하다. 하루에 두 갑 가량 피우는 형편이니 점차 축
소되어 가는 흡연 可能空間의 시대에 불편하기 짝

이 없고, 또한 벌서와 지탄에서 오는 서러움은 점점 심해져 왔다. 이제 새삼스러이 젊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또 그런 생각이 다소 있더라도 이미 제철화되고 一體化 된嗜好物을 멀리 할 용기와 자신이 없는 상황이다. 그저 눈치 봐 가며 큰 죄나 진 사람처럼 숨어서 피우다가 때가 되면 담배와 함께 이승을 떠나 술과 담배에 대한 구속이 없는 자유천지 저승으로 옮겨가야 하겠다.

1970년대 나는 국내외에 걸쳐 무척이나 돌아다녔다. 개인적인 私務나 여행은 거의 없었고 公的인 일들이 대부분이었다. 외국의 경우는 아시아의 日本·泰國·스리랑카 등과 유럽의 주요국가 모두였으며, 국내의 경우는 중요한 都市 거의 전부를 방문하였다. 공적인 활동이었기에 自費 負擔은 없었고 오히려 手當이나 선물을 받아오는 방문이었으니, 행사하고 구경하고 돈 받고 선물 얻는 一舉多得의 여행이었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었다. 남에게 주는 것은 모르고 남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습관이 아주 굳어졌던 것이다. 친구들에게 이 습관을 그대로 행사하다가 가끔 친구들로부터 '습관은 더럽게 들었군' 하는 편지나 비난을 듣기도 했다. 지금은 大悟覺醒, 크게 깨달아 일 번쯤 얻어먹으면 한 번쯤은 사는 경지에 이르렀으니 많이 개선된 편이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한편 여러 기관의 초청을 받아 講演이나 演說을 하였다. 그런데 강의와 강연은 內容과 技巧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강의는 한 科目을 한 학기동안 연속적으로 계속하나 강연은 한 두시간 안에 한 主題를 종결한다는 것, 강의는 한 정된 특정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나 강연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不特定多數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강의는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르치지만 강연은 다소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 그래서 강의는 어렵고 딱딱하지만 강연은 쉽고 흥미로워야 한다는 것, 강의는 수강 후 평가를 하고 성적을 매겨야 하나 강연은 그렇지 않다는 것 등이 다른 점들이다. 강의를 한참 하다가 강연이나 연설을 초청 받아 나가면 大學의 강의처럼 되려고 하여 딱딱해지고, 반대로 放學中 여러 곳에 강연을 다니다가 開學이 되어 다시 대학강의를 시작하면 대중강연이나 연설의 습관이 나타나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우와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하는 能力을 기르는데 상당한 기간이 요했다. 專門性과 大衆性, 特殊性과 一般性, 高踏性과 平凡性을 자유자재로 오고 가며 조화시키는 것도 하나

의 큰 특기이자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10·26 사태로 朴正熙 대통령이 서거하고 崔圭夏 대통령이 취임하는 대변란이 일어나 정치·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팽배해진 시점에서 1970년대의 마지막 해는 저물었다.

4. 1980년대와 나의 장년기

나의 나이 43세에서 52세에 이르는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제5공화국의 전기간과 제6공화국의 초기에 해당되며, 내 개인으로는 昇進과 補職, 創作과 국내외 활동 등 많은 영광과 업적이 있었던 시기였다. 上道洞에서 驛三洞으로 집을 넓혀 이사를 갔고, 副教授에서 正教授로 승진하였으며, 大學院長과 學術團體會長으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집에 에어컨을 달고, 다른 가정에서는 보기 드문 家號懸板을 만들어 걸었으며, 家旗를 제작·비치하였다. 자가용 승용차를 처음으로 구입하였고, 대학원장이 되어서는 官用車를 4년간 타고 다니기도 했다. 勳章을 받고, 노래 歌詞를 작사했으며, 골프라는 운동을 시작한 것, 그리고 처음으로 中國을 방문한 것 등이 모두 이 1980년대에 이루어진 특수한 일들이다.

처음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산 것은 1982년 3월이었으니 내 나이 45세가 되던 해였다. 당시로서는 中型의 크기인 '마크Ⅴ 에코노미'라는 이름의 검은색 차였고, 다소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技士까지 채용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자동차로 인해 지출됨을 뒤늦게 깨달았다. 꼭 가지 않아도 될 곳까지 차를 타고 가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같이 교외로 나가 놀다오니 많은 비용이 들었고, 한 사람의 技士를 채용함으로써 봉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의 식구 전부를 책임지는 꼴이 되어 吉凶事 등의 부조금이 꽤나 나갔다. 1986년에 대학원장이 되어 官用車가 나온 다음에 기사를 내 보냈으며, 그 이후 다시는 기사를 쓰지 않았다. 관용차가 나온 다음 집의 자가용은 아내가 운전면허증을 따서 몰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자동차는 5 내지 7년마다 새 차로 교체하여 '트랑 옥티마', '프린스', '뉴그랜저 익제큐티브' 등으로 고급화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中學校 同窓會의 회장직을 1982년부터 4년간 역임하였다. 동문들의 권유와 성화로 회장에 취임하고 보니 2만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건 역사의

학교치고는 동창회가 아주 허술하였다. 그래서 會則을 제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총회를 열었다. 동창회의 基金을 모으고 사무실을 만들며 會誌를 발간하는 한편 母校에 필요한 시설을 많이 해 주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더니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동창회장으로서 듣기 어려운 칭송을 많이 들었다. 큰 보람이오 길이 同窓會史에 남을 업적이었다. 그러나 다시 다른 동창회장을 맡으라고 하면 단연코 거절할 것이고, 또 실제 그렇게 하여왔다. 그것은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과 지탄으로 쫓겨나기 쉽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칭송을 받으려면 그 개인의 희생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골프라는 안전한 운동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때는 1983년 봄, 46세가 된 시절이었다. 평소 골프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골프를 비난하고 골프 치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反골프者로 소문이 났더니 선배 한 분이 자기가 쓰던 골프채 1점을 주면서 '골프를 비판하고 공격하더라도 알고 나서 하는 게 더 효과적 일 걸세'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습장에 나가라고 독촉하기에 마지못해 연습을 시작했다. 두 달 후 친구 한 사람이 현장에 데리고 나가 소위 머리를 얻어주었다. 무엇을 어떻게 쳤는지 모를 정도로 어리둥절했다. 그로부터 골프에 심취하여 불철주야 노력했다. 골프에 관한 여러 가지 책자를 읽었고 연습장과 필드를 오가며 실력을 연마했다. 같은 해에 100打를 깨는 기록을 세웠고, 배운지 1년만에 90打를 돌파했으며, 드디어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考基準點에서 10점을 넘지 않는 싱글을 쳤다. 주위 사람들이 일찍 배웠더라면 國際選手가 되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들 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지만 基礎가 단단해서 인지 90打 이상은 잘 넘지 않고 있으며, 골프에 대한 비난이나 유해론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고향인 開慶郡 店村邑이 市로 승격하여 '店村市民의 노래'의 作詞 모집이 있었다. 이에 응모하여 當選作으로 선정되었으므로 1987년 봄에 市長으로부터 공로패와 상금을 받았다.

공로패는 가져오고 상금은 모두 店村에 있는 3개 老人會에 고루 나누어 드렸다. 作詞의 소질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새마을노래-영광의 부름 받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院歌', '地方自治의 노래', '開慶市民의 노래' 등을 작사하였으며, 지

급까지 널리 불리워지고 있다.

1988년 8월에 江南區 驛三洞의 새 집을 사서 이사했다. 네 번째 이사하는 내 집이었고 모두 單獨住宅이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連立住宅, 아파트, 빌라 등으로 이사하는데 나는 한번도 단독주택을 떠난 적이 없다. 마당을 좋아하고 나무와 꽃과 잔디를 사랑하고 흙을 가까이 하고픈 마음 때문이 아니었나 한다. 새로 이사 온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인지 처음으로 「明德世家」라는 家號와 「溫知堂」이라는 書室名을 30년 물 속에 두었다는 갑나무의 木板에 새겨 집에 걸었다. 家號의 현판은 원래 大門 밖에 걸려고 하였으나 식당이나 요정으로 오인 받아 손님들이 찾아들지 모른다고 가족과 친지들이 집을 주기에 대문안 집 玄關 입구 위의 벽에 붙여 두었다. 내가 고안한 모델로 家旗를 크게 만들어 응접실에 太極旗와 마주보게 세워두니 무척 운치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역시 가족들이나 내방객들이 무척이나 웃으면서 나를 매우 드문 奇人처럼 평가에 지하에 있는 서재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매우 애석하고 속상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과정에 1980년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1990년대로 들어섰던 것이다.

5. 反省과 自覺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30년은 우리나라에 있어 정치적 변혁과 사회적 변화가 어느 때 보다도 극심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民主化·世界化·地方化 등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은 많은 제약과 난관을 헤치면서 점차 확대되고 가속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經濟成長과 空間開發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 결과적으로는 中進國 隊列로 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인 나 역시 국가발전과 사회변동에 편승하여 함께 성장하고 변화했다. 社會的地位도 향상되었고 活動 領域도 확대되었으며 家政 經濟도 성장하였다. 都市에서 출생한 사람에 비해서는 거의 모든 것이 늦었지만 발전과 변화의 속도는 국민전체의 平均値를 훨씬 웃돌았기 때문에 손쉽게 따라잡을 수 있었고, 1980년대, 곧 내 나이 40대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앞질러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과 더 창조적인 사고가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運도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많은 도움과 지도를 주셨

던 여러 분들에게 정신적 부채를 지게 되었으며, 언제나 고맙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 1960년대는 20代였고, 1970년대는 30代, 그리고 1980년대는 40代였다. 孔子께서는 15세 때 學問에 뜻을 두기로 하였고 30세에 홀로 自立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수행했으며 40세에 와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셨다. 나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늦어 30세 가까이 되어서야 學者가 되기로 결심했고 40세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自立의 문턱에 들어섰으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不惑의 경지는 회갑이 넘은 지금까지도 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수양과 노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태어난 本性이 욕심으로 가득하여 구제불능인지 모르겠다.

스무살이던 1957년에 서울에 와서 처음 얼마 동안은 더없이 착하고 순박했다. 그러나 점차 서울의 각박한 인심과 분위기에 물들기 시작했고,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적응하고 앞서가기 위해 서서히 악착성을 띠기 시작했다. 남들에게 속아 손해도 보았고 중상모략을 당해 궁지에 몰리기도 했으며 이득 없는 고된 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40세가 넘어서면서 남의 말을 새겨듣기 시작했고 利害關係를 따져 처신하는 법을 배웠으며, 때로는 내가 먼저 戰術·戰略을 세워 선수를 치는 약삭빠름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서울사람이 되었고 손해보지 않는 生活人이 되었으며 물인정한 現代人이 되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利己보다는 奉仕가, 잔꾀보다는 德스러움이, 자기중심보다는 모든 사람과의 和함이 더 유익하고 결과적으로 더 보람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알고서도 속아주고 분명한 것도 고의적으로 희생해 주는 아량을 베풀기도 하였다.

우리의 20세기, 곧 1900년대는 술한 격변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빈곤과 퇴폐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民主主義와 地方自治의 기반을 구축했고 경제적 및 물질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국민의 自由와 平等이 신장되었고 복지로운 삶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신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나 한다. 思想과 哲學이 모호하고 價值體系가 혼돈되어 있으며 道德的 氣風이 사라지고 있다. 國家觀이 희박하고 民族正氣를 찾아보기 힘들다. 삶의 價值尺度를 물질과 地位에만 두고 있어 지나친 利己主義로 치달고 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0년간의 쓰라린 경험을 상기하고 오늘의 불합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경건하고도 바른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대망의 2000년대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지나간 100년을 흘러간 하나의 歷史로 묻어버리지 말고 앞으로 살아 갈 새로운 100년을 올바르게 개척 할 原動力이자 龜鑑으로 삼는 슬기로움을 발휘해야 하겠다.



전시의 이모저모 - 야외전시 (1960년대의 동네 재현)



구멍가게



이발소





연탄가게와 19공탄들



솜들집

사진관





극장입구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간판 제막식





전시장 입구



전시장의 세부





1970년대의 안방



1970년대의 부엌

DDT뿌리기



갯장수 · 문장수 · 굴뚝청소부



한국전쟁 직후의 구직자



1960년대의 초등학교 교실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배우들이 연기와 함께 우리 고유의 창(唱)을 하는 여성국극은 1948년, 명창 임춘앵을 중심으로 박녹주, 김소희 등 순수 여류 명창들로만 구성된 '여성국악동호회'가 「춘향전」을 『옥중화』라는 제목으로 공연하면서 생겨났다. 지금은 영화와 TV에 밀려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졌지만 1950~60년대에 한번쯤이라도 보았던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꼭 보고 싶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공연 가운데 하나이다.





“마지막 번사 신출과 함께한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

1948년 윤대룡 감독에 의해 16mm 무성영화로 제작되었던 작품으로
1959년 윤 감독 자신에 의해 재영화화되기도 하였다.

New civilization from foreign countries brought shock and curiosity to Korean people. This civilization was mixed with Korean traditional ways of living. It opened new modern times and brought many changes in Korean life style. But before the people were adapted to these changes, Korea became a Japanese colony and was forced to adopt Japanese life style. Nevertheless, Korean people didn't change their traditions easily and gained independence in 1945. And then there was the Korean war in 1950. It almost ruined the whole country and the people suffered. But this didn't make them give up and they have risen from the past ruins with the National Reconstruction Program of 1960's and Saemaul Movement of 1970's. And they held 1986 Asian Games and 1988 Olympics which was an opportunity to make Korea's development known to the world and to find originality and value of their history to themselves. Now they are facing another trial named IMF Crisis. As they have been, they are conquering these hard times and this spirit will be make the future of Korea in the 21st century.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20th century have brought many changes to ways of living and its quality. Korea has been more changed past 100 years than any other times due to capitalism and western civilization. Works which were done by hands are replaced by machines. Factories produce most of daily necessities and they are sold in markets. People use various ways of payment like credit cards and electronic currency. Western life style has been generalized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ized society. Public houses and high risen apartments are built to accomodate increased population.

And also there were changes inside these houses like from *Ondol* (Korean traditional heating system) to western beds and from *Yeuntan* (coal fuel) to gasoline. Fast food, instant food are popular to save time for the busy people. Korea has risen from the past of colonization, war, and many other trials to the present prosperity.

世紀前半における韓国の情勢はその後わが歴史の下絵になった。外部から入ってくる新しい文化は衝撃と好奇心の中、従来の生活様式と接しあって、近現代という新しい時代を開き、生活様式の變化をもたらしたのである。植民地に轉落し、新しい文化を接することがなくなり、日本の生活様式を強いられたのである。

しかし、われわれの暮らしの様式と傳統文化は變換することがなく、ようやく獨立を迎えた。獨立の喜ぶ間もなく、民族内部に分裂が生じ、韓國戦争が起きた。國土は荒れ果て、國民はぼろをまとい食べるに事缺いた。しかしながら、われわれは諦めなかったのである。

1960年代には國土再建事業と、1970年代にはセマウル運動を通して、再起したのである。それを基盤とし、1980年代にはアジアゲーム(1986)とソウルオリンピック(1988)を催すことにより、われわれの存在を世界にまで廣く知らせ、わが文化が有する固有性と價值を改めて發見する契機となったのである。

いま、われわれは救済金融といった試練の状況を克服している。それまでそうやってきたように、再起する姿が21世紀、新しい千年の歴史が開くわれわれの姿であろう。

20世紀における科學技術文明の發達は、どの時よりも生活様式とその暮らしの質に大きな變化をもたらしたのである。開港とともに資本主義の流入により、過去100年間のわれわれの暮らしはどの時よりも大きい變化に直面していた。人の手でやってきた仕事がほとんど機械に代替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ほとんどの生活用品が工場で作られ、市場を通して取り引きされるようになった。

支拂の手段も物から始まって信用と無形の電子貨幣へと多様化していく。産業社會の發達により、西歐式の生活様式が普遍化し、ほとんどの生活が西歐式に變ったのである。増加している人口が限られた地上に共同住宅や高層アパートを建てている。それにしたがって、自然に生活用品も變わり、オンドルの代りにベッドが、煉炭の代りにプロパンガスが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生活は忙くなり、それにあわせてインスタント食品、洗濯機など人の労働力と時間を惜しむため、多様な生活用品が發達した。

ここで、また開港期に話を戻すと、20世紀のわれわれの生活は植民地、戦争、廢墟の灰の堆積から脱却して、より便利で豊饒な生活のために力を盡したのである。

20世紀初、在韓半島的政治形勢也將成為歷史的根幹。由于收到了外界衝擊，原有的生活方式有所改變，就已經被日本的生活方式所強迫。盡管如此，人們的生活方面和傳統文化並沒有被人們輕易的拋棄，并且最終迎來了獨立。

而獨立的喜悅是短暫的。由于民族内部的分裂戰爭，使得國家土地荒蕪，百姓極苦，但這仍然沒有迫使人們所拋棄原有的生活方式與傳統文化。60年代的國土再建事業和70年代新村運動以及80年代的亞運會和奧運會的舉辦，使我們的存在世人皆知，我們所固有的文化傳統也被衆人有所了解。

現在我們正經功着一場金融危機，但我們在努力克服。展望在21世紀的新面貌，也必將載入史冊。

在20世紀，隨着科學技術文明的發展，人們的生活方式和生有質量方面變化更為巨大。隨着社會開放，資本主義的流入，在過去的一百年中，我們的生活產生了巨大的變化。原來人們手工做的事情，現在大部分已被機器取代，大部分的生活用品生產于工廠，再經過市場來交易，支付手段也由原來物物交換方式，變成爲利用信用卡。

由于產業社會的發展，西洋生活方式更加普及，人們大部分生活已經變得西方化了。爲了滿足不斷增長的人口的住宅需要，蓋集中住宅・高樓大廈。另外，再日常生活中的日用品也出現了。

很大的變化。例如床代替火炕，煤磚取代了煤氣。人們生活比較忙，爲了節省時間，出現了一次性食品，快餐，洗衣機。